

수아와 경복궁의 비밀 문



이 책에 대하여

Seven-year-old Sua discovers a glowing hidden door inside Gyeongbokgung Palace that opens into a magical realm of Korean folklore — where mischievous goblins (dokkaebi), a clever tiger, and a dragon who lost his precious pearl all need her help. Armed with kindness and courage, Sua must recover the pearl before the enchanted world fades forever.



수아



두리



호담



미르



그림여우

어린이날 전날의 경복궁

어린이날 전날의 경복궁

어린이날 전날 오후, 수아는 엄마 아빠와 함께 서울의 경복궁으로 들어갔다. 궁궐의 지붕은 낮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넓은 마당에는 웃으며 걷는 가족들과 한복 자락이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가득했다. 달콤한 솜사탕 냄새와 봄바람이 섞여 지나가자, 수아는 오늘이 평범한 나들이가 아닐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모든 것이 커다란 그림책처럼 또렷해 보였다.

수아는 높은 근정전 지붕 끝에 앉은 작은 잡상들을 올려다보며 저 친구들은 밤이 되면 정말로 걸어 다닐까 상상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고 멀리 가지 말라고 말했고, 아빠는 궁궐은 오래된 이야기가 숨 쉬는 곳이라며 천천히 둘러보자고 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신기한 것들이 자꾸만 발끝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오래된 돌바닥마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자 북소리가 뚝뚝 울리고 사람들은 한꺼번에 앞으로 몰려갔다. 수아는 사람들 어깨 사이로 빙글빙글 도는 종이 바람개비를 따라 몇 걸음 옮겼고, 금세 엄마 아빠의 손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비슷한 모자와 웃음소리만 가득했고, 수아의 심장은 토끼처럼 쿵쿵 뛰기 시작했다. 커다란 궁궐이 갑자기 낯선 미로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큰 소리로 엄마를 불러 보았지만 북소리와 발자국 소리에 목소리가 묻혀 버렸다. 그때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오래된 담벼락 쪽에서 아주 작은 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그 빛은 무섭지 않고, 꼭 누군가 조용히 이쪽으로 와 보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따듯했다. 수아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황금빛 작은 문

황금빛 작은 문

담벼락 뒤에는 봄꽃 가지에 반쯤 가려진 작은 문 하나가 있었다. 어린아이 어깨만 한 그 문은 황금빛으로 은은하게 빛났고, 가장자리에는 구름과 불꽃, 그리고 길게 몸을 튼 용이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수아가 손끝을 가까이 대자 차갑지 않은 온기가 느껴졌고, 문고리는 오래된 종처럼 맑게 떨렸다. 아주 오래 기다려 온 문처럼 보였다.

수아는 혹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일까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문틈 사이에서 방울이 딸랑이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풀 냄새가 흘러나왔고, 이상하게도 마음속 두려움보다 인사가 먼저 떠올랐다. 수아는 아주 작게 안녕하세요 하고 속삭인 뒤 두 손으로 문을 밀었다. 문은 삐걱 소리 대신 깊은 숨을 쉬듯 부드럽게 열렸다.

문 너머에는 경복궁과 닮았지만 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기와지붕 같은 구름이 낮게 떠 있었고, 호박 등불이 공중에 둥실 떠다녔으며, 멀리 서는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은빛 모래 위에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런데 찬란해야 할 풍경의 가장자리마다 회색이 서서히 번지고 있어, 예쁜 그림 위에 잿빛 물이 스미는 것처럼 보였다. 신기함과 걱정이 함께 밀려왔다.

바로 그때 향아리 뒤에서 뿔이 작고 눈이 동그란 도깨비 하나가 폴짝 튀어나왔다. 그는 놀란 얼굴로 수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이제야 찾아왔구나 하고는 제 이름이 두리라고 소개했다. 두리는 이 나라의 빛은 용 미르의 구슬에서 나오는데, 장난처럼 웃던 그림여우가 그 구슬을 훔쳐 달아난 뒤 모든 것이 조금씩 회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문고리를 꼭 쥐었다.



회색 숲의 도깨비 두리

회색 숲의 도깨비 두리

두리는 장난꾸러기답게 말할 때마다 귀가 쫑긋쫑긋 움직였지만, 목소리 끝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두리가 수아를 데리고 지나간 숲에서는 초록잎이 반쯤 잿빛으로 바래 있었고, 버섯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색색의 연기도 힘없이 흐려지고 있었다. 길가의 작은 도깨비들은 웃으려다 말고 입술만 꼭 다문 채, 하늘을 불안하게 올려다보았다. 수아는 회색이 바람처럼 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는 원래 무지개처럼 번쩍었다는 커다란 북이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이나 빛을 잃은 채 조용했다. 두리는 그림여우가 이 북 곁을 스쳐 지나갈 때 마지막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 뒤로 바람은 차가워졌고, 장난감처럼 깔깔거리던 도깨비 방망이들도 둔한 나무막대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수아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광장 구석에서 회색 바람개비를 들고 있던 어린 도깨비 하나가 수아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예전에는 이 바람개비가 혼자 빙빙 돌며 노래까지 했는데, 이제는 밀어도 겨우 한 번만 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수아는 가슴이 찢르르 아팠다. 그냥 구슬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여기 사는 모두의 웃음과 색을 돌려주는 일이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리는 주머니에서 도토리 모양의 작은 지도를 꺼내 펼쳤다. 지도에는 줄무늬 언덕, 돌강, 웃음 다리 같은 이름이 반짝였다가 어둡게 사라졌다. 두리는 혼자서는 자꾸 서두르다 길을 놓친다며, 수아에게 함께 가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수아는 무섭지만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우러 가는 거라면 해 보겠다고 말했고, 두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안심한 듯 크게 웃었다.



호담과 첫 번째 단서

호담과 첫 번째 단서

줄무늬 대숲 언덕에 도착하자 바람이 대나무를 쓸며 싹싹 소리를 냈다. 그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두리는 놀라서 수아 뒤로 숨었지만, 수아는 호랑이의 금빛 눈보다 떨리는 수염 끝을 먼저 보았다. 가까이 가 보니 앞발에 검은 가시가 깊이 박혀 있어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지고 있었다. 무섭기보다 아파 보였다.

수아는 도망치지 않고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펼쳤다. 그리고 무섭다면 소리 내지 않아도 되니, 발만 잠깐 보여 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호랑이는 낮게 숨을 내쉬더니 정말로 앞발을 내밀었다. 수아는 두리에게 바람이 덜 부는 쪽에서 앞을 잡아 달라 부탁한 뒤, 가시를 살짝 빼고 손수건으로 발을 감싸 주었다. 호랑이는 그제야 긴장을 풀며 고개를 숙였다.

그 호랑이의 이름은 호담이었다. 호담은 그림여우가 빛나는 보자기를 입에 문 채 돌강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돌강의 징검다리 는 거짓말을 싫어해서, 걸으로 센 척하거나 무서움을 숨기면 발밑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호담은 바람 읽는 줄무늬 갈대를 하나 꺾어 주며, 이 갈대가 진짜 길이 있는 곳에서만 곧게 선다고 알려 주었다.

두리는 호담이 생각보다 친절하다는 사실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호랑이는 무조건 으르렁거리는 줄 알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호담은 코웃음을 한 번 치고는, 걸모습만 보고 먼저 겁먹는 건 너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쳤다. 수아는 둘의 티격태격이 조금 우스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 덕분에 무거웠던 마음도 약간 가벼워졌다. 세 친구는 갈대를 들고 돌강을 향해 함께 걸어갔다.



돌강의 흔적

돌강의 흔적

돌강은 물 대신 거울처럼 맑은 빛이 천천히 흐르는 이상한 강이었다. 표면은 잔잔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보는 사람의 걱정이 검은 물결처럼 번져 보여, 두리는 한 번만 봐도 어질어질하다며 눈을 질끈 감았다. 징검다리는 물 위에 듬성듬성 떠 있었고, 몇 개는 회색으로 바래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했다. 수아는 서두르면 오히려 길을 잃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수아는 강가에 모여 있던 작은 은빛 물고기들이 자꾸만 같은 세 개의 돌 주변을 맴도는 것을 발견했다. 호담이 준 갈대를 들어 보니, 정말 그 돌 위에서만 갈대 끝이 똑바로 섰다. 수아는 도토리 지도의 빈 칸에 조약돌로 표시를 해 가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두리는 처음엔 크게 뭘 생각만 했지만, 곧 수아의 리듬을 따라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강 한가운데쯤 오르자 물속에서 너는 너무 작아, 늦었어, 돌아가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수아의 발끝이 잠깐 흔들렸지만,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멈춰 섰다. 그리고 나는 무섭지만 도망가고 싶지는 않아. 누군가 울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 볼 거야 하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물결이 잔잔해졌고, 회색이던 돌 하나가 다시 밝은 은빛으로 빛났다.

강을 건넌 뒤 모래밭 끝에는 가느다란 은빛 털 한 올이 걸려 있었다. 손에 올려 보니 달빛 풀 냄새와 함께 차갑고 슬픈 기운이 스쳤다. 호담은 이 냄새가 웃음 다리 근처에서 자라는 풀과 닮았다고 말했다. 두리는 얼른 가자고 손짓했지만, 수아는 털 한 올도 외롭다고 말하는 것 같아 잠깐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웃음 다리의 수수께끼

웃음 다리의 수수께끼

웃음 다리는 종과 가면이 주렁주렁 달린 길쭉한 다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판이 축 쳐져 있었고, 가면들은 모두 찌푸린 표정으로 입을 닫고 있었다. 다리 입구에 선 나무 수문장은 다리를 건너려면 먼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 다며,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두리는 떡, 콧김, 껌장난이라고 줄줄이 말했지만 수문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가면들의 눈가를 찬찬히 살폈다. 모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래 웃 지 못해 지쳐 보였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친절이요, 그리고 웃음도요 하고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주면 마음이 더 커지고, 웃음은 한 사람이 시작하면 옆 사람에게도 번져 가니까요. 그러자 수문장의 나무 눈썹이 조금 올라가고, 다리 끝의 작은 종 하나가 딸랑 하고 울렸다.

하지만 다리를 완전히 깨우려면 진짜 웃음이 필요했다. 수아는 긴장을 풀려고, 두리가 아까 돌강 앞에서 무서워 눈을 꼭 감은 채 허세를 부리던 모습을 조심스럽게 흉내 냈다. 두리는 처음엔 발끈했지만 곧 자기 뺨 끝에 대나무 잎이 걸린 줄도 모르고 잘난 척하던 일을 떠올리고는 배를 잡고 웃었다. 호담까지 낮게 킁 하고 웃자, 가면들이 하나둘 활짝 벌어졌다.

종소리가 연달아 울리며 다리판에 금빛 선이 켜졌다. 수문장은 이제 지나가도 좋다고, 그림여우가 얼마 전 빗을 품은 작은 등 하나를 안고 바람 시장 쪽으로 건너갔다고 알려 주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의기양양하기보다 자꾸 뒤를 살피는 듯 불안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수아는 여우가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수수께기!
?

바람 시장의 잃어버린 색

바람 시장의 잃어버린 색

바람 시장에 도착하자 커다란 천막들이 후들후들 떨고 있었지만, 색은 거의 다 사라져 있었다. 파란 옛, 빨간 부채, 초록 구슬을 팔던 가게들은 회색 먼지를 뒤집어쓴 듯 칙칙했다.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풀이 죽어 있었고, 시장 한복판의 작은 풍금은 바람이 들어와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다. 두리는 이런 시장은 처음 본다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수아는 서둘러 단서를 묻기보다 먼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파란색을 잃은 사장님은 바다를 닮은 옛빛을 그리워했고, 빨간 부채 가게 주인은 노을 같은 붉은 무늬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수아는 모두가 기억하는 색을 하나씩 말하게 하고, 물건들을 그 순서대로 천천히 다시 늘어놓았다. 말로 색을 부르자 이상하게도 잿빛 천막 위에 옅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두리는 빈 항아리를 뒤집어 북처럼 두드렸고, 수아는 파랑은 시원해, 빨강은 따뜻해, 초록은 숨 쉬는 냄새야 하고 짧은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상인들도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다. 그러자 잠잠하던 풍금이 스스로 바람을 삼키며 맑은 소리를 냈고, 시장 천막 끝에서부터 잃어버린 색들이 새벽빛처럼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고마워진 상인 한 명이 깃털 모양 나침반을 수아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그림 여우가 잠든 연못을 건너기 위해 달돌 하나와 어두운 비늘 조각을 바꾸어 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우가 값을 치를 때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흠친 물건을 자랑하는 얼굴이 전혀 아니었다고도 알려 주었다. 수아는 단서를 얻었지만, 여우의 떨리는 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잠든 연못과 작은 비늘

잠든 연못과 작은 비늘

잠든 연못은 유리처럼 매끈했고, 물 위의 연잎들은 모두 눈을 감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보통이라면 거북 배가 천천히 손님을 실어 나르지만, 오늘은 물속 어디에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두리가 돌멩이를 던지려 하자 수아는 얼른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잠든 것을 억지로 깨우면 더 깊이 숨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수아는 주머니를 뒤져 경복궁에서 남겨 둔 작은 쌀과자를 꺼냈다. 그리고 연못가에 쪼그리고 앉아, 혹시 배를 빌려줄 수 있으면 함께 빛을 돌려놓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잠시 뒤 물결 아래에서 둥근 등껍질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북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이 연못은 큰 소리보다 부드러운 약속을 더 믿는다고 천천히 말했다.

수아가 연못 한가운데를 향해 모두의 색을 되찾아 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하자, 닫혀 있던 연꽃 하나가 스르르 피어났다. 꽃 중심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비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두리가 숨을 삼키며 저건 분명 용 미르의 비늘이라고 속삭였다. 비늘을 손에 올리자 따뜻한 떨림이 퍼졌고, 잿빛이던 물가 갈대 끝도 아주 조금 초록을 되찾았다.

거북 배를 타고 연못을 건널 때, 수아는 물에 비친 그림 속에서 그림여우의 모습을 잠깐 보았다. 여우는 대나무 미로 쪽으로 달리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고, 혼자라기보다 무엇인가를 지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아는 그 표정을 기억해 두기로 했다. 때로는 잡아야 할 상대의 이유를 알아야 길이 더 잘 보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대나무 미로의 메아리

대나무 미로의 메아리

대나무 미로에 들어서자 사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똑같이 울려 퍼졌다. 왼쪽에서 들린 발자국이 금세 오른쪽에서도 따라왔고, 두리가 내신 한숨마저 열 개가 되어 머리 위에서 맴돌았다. 두리는 자기 목소리 그림자에게 길을 묻다가 더 헛갈려 버렸다. 길이 아니라 걱정이 자꾸 부풀어 오르는 장소라는 것을 수아는 곧 알아차렸다.

수아는 바람 시장에서 받은 깃털 나침반과 호담의 줄무늬 갈대를 함께 꺼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뒤, 가장 조용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느껴 보았다. 요란한 메아리는 사방에서 떠돌었지만, 진짜 길이 있는 쪽의 바람만은 이상하게도 부드럽고 곧았다. 수아가 그 방향을 가리키자 나침반 깃털도 살짝 파랑게 빛났다.

미로 중심 가까이에서 낮고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다. 호담이 대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나타나, 여기서는 으르렁거림보다 잘 듣는 귀가 더 센 법이라고 말했다. 셋은 더 깊숙이 들어가다가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발견했다. 작은 그림자 새 한 마리가 덩굴에 날개가 묶여 떨고 있었다. 수아는 덩굴을 풀어 주며 괜찮다고 달랬고, 두리는 자신의 모자 끝으로 새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자유로워진 그림자 새는 놀라 도망치는 대신, 몇 번 원을 그리며 그들 앞을 날았다. 새가 멈춘 곳에서 보인 것은 회색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비밀길이었다. 땅에는 여우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지만, 그 위로 더 크고 무거운 그림자 자국이 겹쳐 있었다. 수아는 그림여우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걸음을 더 서둘렀다.



회색 산의 작은 불씨

회색 산의 작은 불씨

회색 산은 마치 오래된 재가 하늘에서 계속 내려앉는 곳 같았다. 바위 틈마다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지만, 가까이 가 보니 그건 얼어 가는 작은 불씨 정령들이었다. 정령들은 바람이 너무 차가워 마지막 남은 불도 지키기 어렵다고 떨며 말했다. 두리는 구슬이 더 중요하니 그냥 지나가자고 했지만, 수아는 길을 밝힐 힘부터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아는 산비탈에서 마른 달풀을 모으고, 두리에게는 바람막이처럼 서 달라고 부탁했다. 호담은 커다란 몸으로 바위 틈을 가려 차가운 바람이 직접 불씨에 닿지 않게 해 주었다. 수아는 손바닥으로 아주 작은 불꽃을 감싸며 급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다시 커져도 괜찮아 하고 속삭였다. 그 말에 겁먹던 불씨들이 하나둘 주황빛 눈을 뜨기 시작했다.

조금 뒤 산길에는 따뜻한 숨결처럼 부드러운 열기가 돌아왔다. 살아난 불씨 정령들은 감사의 뜻으로 석탄빛 손등불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 등불은 숨은 발자국과 거짓 그림자를 가려 내는 힘이 있다고 했다. 수아가 불을 켜자, 회색 바닥 위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발자국 무늬들이 별자리처럼 떠올랐다. 여우의 가벼운 발자국 옆에 훨씬 크고 흐릿한 자국이 계속 따라붙어 있었다.

그 자국은 살아 있는 짐승 것이라기보다, 밤이 발을 갖게 되면 이럴까 싶은 모양이었다. 두리는 그제야 그림여우가 단지 욕심 많은 도둑이 아니라 무언가에게 쫓기며 달아났을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수아는 산 정상 쪽 동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약한 푸른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모두가 찾던 구슬의 숨결이 저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림여우의 사연

그림여우의 사연

동굴 안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푸른 구슬이 달빛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앞에 선 그림여우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꼬리 끝은 여러 번 다친 듯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여우는 수아 일행을 보자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눈빛에는 성난 불보다 지친 그림자가 더 짙었다. 수아는 바로 달려들지 않고 한 걸음 멈춰 섰다.

등불을 들어 주위를 비추자 동굴 구석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작은 그림자 짐승들이 서로 기대어 떨고 있었고, 천장 틈으로는 검은 안개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그림여우는 멀리 그림자 골짜기에서 이 안개가 밀려와 아이들을 삼키려 하자, 막을 빛이 필요해 미르의 구슬을 훔쳤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구슬을 가져오자 다른 세상이 회색으로 시들기 시작해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고 했다.

수아는 여우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천천히 말했다. 구슬 하나로 자기 친구만 지키려 하면 다른 누군가의 집이 어두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모두가 더 아프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림여우는 아무도 그림자 짐승 편을 들어 주지 않을 줄 알았다고 낮게 대답했다. 두리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떨고 있는 작은 짐승들을 보자 입술을 꼭 다물고 수아 옆에 조용히 섰다.

수아는 미르에게 구슬을 돌려주더라도, 그림자 골짜기를 외면하지 않도록 함께 부탁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먼저 믿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는 법을 배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림여우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지만, 수아가 주머니에서 꺼낸 은빛 털 한 올을 내밀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수아는 네가 남긴 이 털도 외롭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끝까지 따라왔어 하고 말했다.



달빛 계단의 선택

달빛 계단의 선택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거대한 검은 안개가 산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림자 골짜기에서 밀려온 어둠은 구슬 빛을 노리고 있었고, 그림여우는 본능적으로 구슬을 물고 다시 달아나려 했다. 두리는 잡아야 한다며 방망이를 들었고, 호담은 앞을 막으려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수아는 지금 싸우면 모두가 더 무서워질 뿐이라는 걸 알았다.

수아는 석탄빛 손등불을 바닥에 놓고, 미르의 비늘과 깃털 나침반을 그 주위에 삼각형처럼 두었다. 그러자 작은 빛의 원이 생겨 차가운 안개를 잠시 밀어냈다. 수아는 떨고 있던 그림자 짐승들을 먼저 그 원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두리는 망설이다가 가장 작은 짐승 하나에게 자기 모자를 덮어 주었고, 호담도 몸을 낮춰 바람을 막아 주었다.

그 모습을 본 그림여우의 귀가 천천히 내려왔다. 자신이 지키려던 아이들을 도깨비와 호랑이가 함께 보호하는 장면은 여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수아는 너 혼자 모든 어둠을 막으려 해서 더 힘들었던 거야. 이제는 같이 방법을 찾자고 말했다. 그림여우는 한참 동안 구슬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에 물었던 푸른 구슬을 조심스럽게 수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구슬은 손에 닿자 조용히 숨을 쉬듯 빛났다. 동굴 바닥에 있던 어둠은 잠시 뒤로 물러났고, 그 사이 산 아래 하늘을 향해 달빛 계단이 한 줄기씩 나타났다. 그림여우는 아직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네 말이 맞는지 따라가 보겠다고 낮게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가는 동안은 누구도 뒤에 남겨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용궁의 마지막 문

용궁의 마지막 문

달빛 계단 끝에는 구름과 물안개가 얽혀 만든 용의 궁전이 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문은 검은 매듭 같은 연기로 꽁꽁 묶여 있어 아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문 너머에서는 힘이 약해진 미르의 긴 숨소리가 들려왔다. 푸른 비늘은 빛을 잃고 있었고, 궁전 기둥의 금빛 무늬도 회색 금처럼 바래 있었다.

미르는 희미한 목소리로, 구슬이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 마지막 문이 마음의 약속이 아니면 열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힘으로 밀면 매듭은 더 단단해진다고 했다. 수아는 모두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누구 하나의 힘이 아니라 서로 도운 마음이었다는 걸 떠올렸다. 그래서 매듭을 풀 열쇠도 바로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다.

먼저 두리가 앞으로 나와 다시 웃음을 잃지 않도록 장난도 남을 울리지 않는 쪽으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호담은 강한 발톱보다 끝까지 지켜 보는 인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며, 두려움 앞에서도 함부로 으르렁거리기보다 제대로 보겠다고 말했다. 그림여우는 자기 골짜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집도 함께 지킬 길을 찾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마지막으로 수아는 무서워도 먼저 듣고, 먼저 돕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속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검은 매듭은 가느다란 실처럼 풀려 나갔다. 마지막 문이 열리자 가운데 받침대에 동그란 홈이 드러났지만, 표면에는 금이 있었다. 미르는 구슬을 올릴 때 억지로 누르지 말고, 이 세계가 다시 누구의 것이 될지 분명히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아는 두 손으로 구슬을 감싸 안고 천천히 받침대로 걸어갔다.



빛이 돌아오는 밤

빛이 돌아오는 밤

수아가 푸른 구슬을 받침대 홈에 살며시 올려놓자, 금이 간 자리가 먼저 부드러운 빛으로 메워졌다. 그다음 궁전 바닥과 기둥, 지붕 끝으로 푸른 금빛이 물결처럼 번져 나갔다. 회색이던 대숲은 다시 싱그러운 초록을 되찾고, 잠든 연못에는 연꽃이 한꺼번에 피어올랐다. 멀리 도깨비 마을의 북소리도 동동 힘차게 살아났다.

미르는 하늘을 가르듯 몸을 일으켜 길고 우아한 날개를 펼쳤다. 약해졌던 눈빛은 맑은 새벽 하늘처럼 깊어졌고, 입김이 닿는 곳마다 잿빛 구름이 걷혀 나갔다. 미르는 그림여우를 꾸짖기보다, 그림자 골짜기에도 정당한 빛과 쉼 곳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제 함께 돌보자고 말했다. 그러자 여우의 꼬리는 처음으로 긴장에서 풀리며 천천히 흔들렸다.

미르는 수아 앞에 고개를 낮추고 말했다. 「언제든 이 문을 찾을 수 있는 아이는 용감한 마음을 가진 아이란다. 용감함은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따듯함을 잃지 않는 마음이지.」 두리는 감동한 얼굴로 뿔 끝에 매단 작은 방울씨 하나를 수아에게 선물했고, 호담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가장 멋진 인사를 건넸다.

곧 새벽빛이 궁전 가장자리에 스며들며 경복궁으로 돌아가는 문이 다시 열렸다. 수아는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제 이 세계가 다시 숨 쉬고 있다는 걸 알기에 웃을 수 있었다. 그림여우도 뒤에서 작게 꼬리를 흔들며 다음에는 숨지 않고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아는 모두에게 꼭 다시 만나자고 손을 흔든 뒤, 황금빛 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책 속에 남은 문

책 속에 남은 문

문을 지나자 다시 경복궁의 오래된 담벼락 뒤였다. 북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들렸고, 해는 조금도 많이 움직이지 않은 듯 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다. 엄마 아빠는 바로 모퉁이에서 수아를 찾아 달려왔고, 수아는 아무 말보다 먼저 두 사람을 꼭 안았다. 가족은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라 생각했지만, 수아의 심장 안에는 커다란 모험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수아의 주머니에서는 작은 방울씨가 은은하게 맑은 소리를 냈다. 밤이 되면 미르의 비늘처럼 푸른 빛이 아주 잠깐 손끝에 맺혔다 사라지곤 했다. 수아는 그걸 보며 모든 일이 꿈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누구에게 길게 설명하기보다, 그 따뜻한 비밀을 조용히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어린이날 아침, 식탁 위에는 리본이 묶인 선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안에는 표지에 금빛 문이 그려진 특별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책 제목은 수아와 경복궁의 비밀 문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두리의 웃는 얼굴, 호담의 줄무늬, 그림여우의 조심스러운 눈빛, 미르의 푸른 하늘 같은 비늘이 한 장 한 장 살아 있는 것처럼 펼쳐졌다.

마지막 장에는 아무 글도 없는 황금빛 문 그림만 남아 있었다. 수아가 손끝으로 그 문고리를 살짝 만지자, 아주 익숙한 풀 냄새와 따뜻한 바람이 책장 사이에서 스쳐 나왔다. 수아는 빙긋 웃으며 책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용감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서든 다시 그 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조용히 믿었다.





♥와 함께 🇳🇴에서 Plyx가 만듭



디지털 및 오디오 에디션을 보려면 스캔하
세요